

지역 메아리

완주군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 총력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주군은 운주면 소재지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심사(신규사업성 검토)에 참여했으며, 오는 9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은 운주면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이 낙후된 운주면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심지 기능이 약해진 소재지에 생활문화공동체 센터인 '돌봄'과 청년들을 위한 활동센터인 '꿈'을 신축하게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마음 쉬는 금요일'
프로그램 열려

김제시는 오는 27일부터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금산사(주지 성우)에서 마음 쉬는 금요일 프로그램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연일 단색행진을 이루는 등 참석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또다시 선정, 금산사 전통산사에 있던 역사문화재를 활용하고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맞게 재해석된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나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륵전 설화를 배경으로 한 창작판소리극과, 보물 숲을 책 만들기, 문화재 이야기 한마당, 오유지족 다식체험, 미륵전 탁본체험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월동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 준비

김제시 교월동(동장 정우근)과 지역발전협의회(회장 홍종식)는 오는 14일 월촌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실시되는 제9회 교월동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10일 교월동에 따르면 지난해 AI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2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교월동 사회단체 임원 간담회, 통장회의 등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제9회 교월동민의 날은 풍물놀이와 난타공연, 김제시립합창단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평양권 설경 예술단, 국악단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동민 체육행사, 노래자랑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동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화합한마당 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올해 고용률 62.3% 달성

공공분야 4999개 · 민간분야 216개 일자리 창출

완주군이 올해 고용률 목표를 지난 해보다 3% 상승한 62.3%로 설정했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2018년 일자리 목표 공시를 통해 고용률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62.3%를 달성하고, 공공분야 4999개 및 민간분야 216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기업유치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트랙 일자리 정책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민간산학 투자유치 협의회, 일자리 지원센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공동체 지원센터,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및 무한상상실 등의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해 기업유치, 취

업지원 서비스 제공, 공동체회사 창업 및 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질 좋은 기업일자리 창출을 위해 테크노밸리 2단계 및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 증설, 스마트팩토리 전환 지원 등 경영활동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따뜻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마을회사 및 공동체회사 육성,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지정 등 록과 함께 로컬푸드 정책 도약을 통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외에도 다문화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시급한 일자리 안정망 구축을 위해 재정일자리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지역주민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며, "올해 일자리 목표 공시를 통해 완주군의 일자리 창출 목표와 의지를 대내외 공표해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4년 민선6기 일자리 핵심 공약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만개(滿開),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완주' 달성을 위해 매년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문화체육센터 · 청소년 문화의집 '첫 삽'

완주군, 이서혁신도시

완주군이 15만 도동복합 자족도시 도약의 밑거름이 될 '이서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 청소년 문화의집' 첫 삽을 떴다.

10일 완주군은 이서면 남양사이버 아파트 맞은편에서 이서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송하진 도지사, 정성모 군의장, 도 · 군의원, 기관단체장, 학생을 비롯한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여가문화 및 체육복지에 크게 기여 할 이서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을 축하했다.

이서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 청소년 문화의집은 총 사업비 152억원을 투자해 이서면 상개리에 위치한 1만 2338㎡ 부지에 2층 규모로 실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운동실 등 체육시설이 조성된다.

또한 자치활동실, 여가문화를 배울



완주군이 15만 도동복합 자족도시 도약의 밑거름이 될 '이서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 청소년 문화의집' 첫 삽을 떴다.

수 있는 강의실, 청소년 고민을 상담하는 상담실을 갖춘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이 이뤄지며 오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체력단련과 함께 세대간 공감과 화합 소통의 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그동안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토지보상, 행정 절차 이행 등 이 순조롭게 진행돼 모든 이들의 축하 속에 기공식을 갖게 됐다"며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고의 시설로 건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벚꽃 바자회

김제시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 음식 부스 운영

김제시 백구면 번영로에 흐드러진 벚꽃을 보려는 상춘객이 많은 4월, 백구면민의 화합의 잔치인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벚꽃 바자회'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백구소공원에서 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행사는 백구면 주민 화합 및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일환으로 계획해,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은희) 20여명이 주축으로 개최했으며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로 음식 부스를 운영했다.

위원장 조은희는 "세 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시기적으로 영농을 준비해야하는 바쁜시기이고 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부담감은 있지만 백구면 주민들의 역량이 결집되어 백구면 발전에 중심

점이 필요하고 주민들과 함께 더 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판단하여 개최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꽃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면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백구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행사를 잘 마무리 짓게 돼서 너무 고맙고 기쁘다"며 말했다.

정관주 면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화합 및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랑의 벚꽃바자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기쁘고 특히, 주민들이 직접 담긴 동동주와 각종 농산물로 정성껏 손수 준비한 향토음식도 맛보며 더욱더 바자회가 빛을 발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현 완주군수 비리 10대 의혹 해명하라"

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

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가 "현 완주군수에 재임기간 일어난 10대 의혹을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10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규모 농업기반 개선 사업 수의계약 특혜, 완주군 체육시설 횡령비리, 인재스쿨 부실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완주군 4등급, 채용비리 의혹, 완주군산단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공사수주와 관련한 불법수주, 삼례하수공공처리장 70억 특정업체 밀어주기, 완주장애인단체 공금횡령, 완주문화원 공금 빼돌린 사건, 완주군 방과 후 수업 학원선정 등 10가지 의혹을 해명하라"고 밝혔다.

특히 유 예비후보는 "입수수색 2016년, 2017년, 연속 2차례 라는 수처스런 일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완주군은 문화원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도 무마, 은폐를 하기 에 급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박성일 군수는 10대의혹을 해명하고, 스스로 부끄러운 점이 없다는 것을 군민 앞에 명명 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소규모 농업기반 개선사업 수의계약 특혜뉴스 내용에는 소규모 농업기반 개선사업이라는 기사 내용이 없고, 지난 3월 7일 kt에서 보도한 내용중 수의계약 특혜뉴스 내용에는 소규모 농업기반 개선 사업이라는 내용과 짜집기 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위 내용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과 신문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